

2001年度 地方財政

投・融資事業審査指針



京 畿 道

이 유인물은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입니다

박 재관 *[Signature]*

심사의 확대·강화

□ 기초단체의 심사범위 축소, 광역단체의 심사범위 확대

○ 시·군·자치구 심사대상사업범위를 축소

- 종전 : 총사업비 50억원미만 사업과 전액 시군구비사업
- 개선 : 총사업비 30억원미만 사업과 전액 시군구비사업

○ 시·도 심사대상범위 확대

- 종 전
 - 총사업비 50억원이상~200억원미만 시·군·자치구사업
 - 총사업비 20억원(서울시는 30억원)이상 200억원미만 시·도사업과 전액 시도비로 추진하는 사업
 - 개 선
 - 총사업비 30억원이상~200억원미만 시·군·자치구사업
 - 총사업비 20억원(서울시는 30억원)이상 200억원미만 시·도사업, 전액 시·도비로 추진하는 사업
- ※ 투·융자심사규칙개정안에 반영

□ 행사성 사업에 대한 중앙심사 실시

- 시설물, 구조물 등을 임시적·일회성으로 설치·구축하거나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하는 10억이상 사업
 - 공연·축제·문화행사 등 9개 종류의 사업
- ※ 투·융자심사규칙개정안에 반영

□ 제심사의 강화

- 종전 : 사업비가 50%이상 늘어난 경우 제심사
- 개선 : 사업비가 50%미만 늘어난 사업도 제심사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시군구에서 심사한 사업으로 1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· 시도에서 심사한 사업으로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·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한 사업으로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|
|--|

※ 투·융자심사규칙개정안·지침에 반영

□ 심사대상사업의 확대

-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으로 심사
- 기금·출연금·출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으로 심사
- 산하단체, 공기업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으로 심사

※ 투·융자심사지침에 반영

□ 현지심사제도 강화

- 사업시행으로 주민피해 발생우려지역, 다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, 사업비규모가 50%이상 늘어날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은 반드시 현장심사를 병행토록 함

※ 투·융자심사지침에 반영

김포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35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2년 5월 6일
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길준

1. 수정이유

- 안 제8조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조·호가 현행과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음.

2. 주요골자

- 가. 인용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조·호를 바로잡음.(안 제8조)

김포시지방재정투·용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김포시지방재정투·용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”를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8호”로 한다.

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) 시장은 <u>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</u> 의 규정에 의한 자체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매년 <u>10월 10일까지</u>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	제8조(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) <u>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</u> <u>11월 10일</u>	제8조(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) <u>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8호</u> <u>11월 10일</u>